

담양군, 기초생활 거점 확충...공동체 활성화 나선다

가사문학면에 문화센터 조성
40억 투입 지상 3층 시설 준공
무인카페·공유 미용실 등 배치



담양군이 최근 가사문학면사무소 맞은편 일원에서 '가사문학면 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기초생활 거점 확충을 위해 맞춤형 복합 문화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나선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 가사문학면사무소 맞은편 일원에서 '가사문학면 문화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준공식에는 군 관계자를 비롯해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거점 공간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문화센터 건립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 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군은 지난 2020년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센터 건립과 지역 역량 강화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

해 왔다. 새롭게 문을 연 가사문학면 문화센터는 지상 3층 규모의 현대식 복합 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목소리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층별 공간을 세밀하게 구성했다.

건물 1층은 이웃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무인 카페 형태의 쉼터와 심리 지원을 위한 상담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을 배

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이어 2층에는 체력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과 센터 운영사무실이 들어섰으며, 3층에는 다양한 행사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다목적실을 단장했다.

특히 3층 공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용 공유 미용실인 '꾸밈방'과 소규모 회의실을 별도로 마련해 시설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아울러 건물 외부에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센터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했다.

군은 이번 개관을 기점으로 지역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맞춤형 문화·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획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도형 사업을 전개해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손수철 가사문학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센터는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 이곳이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적인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공간재생과장은 "새로 조성된 센터가 주민들의 문화·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체계적인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 신대천서 '윤슬 소나타' 봄밤 수놓는다

오늘 야간 클래식 공연 개최
공연·힐링 2개존 테마 구역
대중 감성곡 등 폭넓은 연주

은 신대천을 수도권의 청계천에 버금가는 지역 대표 문화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행사는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윤슬'을 주제로 삼아 두 가지 테마 구역으로 나눠 운영된다.

먼저 공연 구역인 '윤슬소나타'에서는 앙상블 '티코트리오'가 무대에 올라 라이브 연주를 펼친다.

그랜드피아노, 바이올린, 콘트라베이스로 이뤄진 3인조 연주팀이 잔잔한 하천 물소리를 배경으로 정통 클래식부터 대중적인 감성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휴식 구역인 '윤슬위로'는 물결 위라는 공간

적 의미와 마음을 다독인다는 중의적 뜻을 담아 조성됐으며, 일렁이는 캔들 조명과 캠핑 소품들을 배치해 방문객들이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신대천의 생태 자산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상설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할 방침이다.

순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야생화와 봄꽃이 어우러진 신대천은 전 세대가 찾는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 공간"이라며 "이곳을 도심 속 문화 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인 만큼 많은 분들이 봄밤의 선율을 통해 위로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양홍철 기자

장흥 진균류바이오센터 국가 연구사업 수주

산림자원 기능성 소재화 속도
그린바이오 산업화 개발 착수



장흥군이 지역 산림자원과 유용 미생물 발효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나서는 등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진균류바이오센터는 최근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불가시나무 열매와 토종다래 열매를 대상으로 원물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센터는 효모와 유산균, 버섯균사체 등 미생물

기반의 발효기술을 적용해 차별화된 기능성 소재를 중점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연구기관인 전남산림연구원 및 경상대학교와 협력해 원물 생산체계 구축과 생리 활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최근 참가기관 킷아웃 미팅을 열고 소재 조달 계획과 기관별 역할 분담 등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진균류바이오센터 관계자는 "이번 국가연구 사업을 통해 산림자원의 실질적인 산업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며 "독자적인 발효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남 지역 임산물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홍록 기자

고흥군, 드론쇼 연계 '녹동 쌈지마켓' 개최

오는 4일 쌈지공원 일원서
빵 축제·플리마켓 활력 기대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 등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특별행사로 기획된 '우리동네 빵 축제'는 고흥 관내 제빵사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빵을 선보이는 자리로, 드론쇼 시차 전 도양읍 시가지 분위기를 끌어올릴 핵심 콘텐츠다.

지난해 10월 전남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열려 호응을 얻었던 쌈지마켓은 올해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밖에 군은 오는 10월까지 매일 첫째 주도요일마다 드론쇼와 연계해 정기 운영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녹동 사슴골 쌈지마켓은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도시재생과 지역 상권 활



성화를 위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행사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고흥군은 지역 대표 축제인 드론쇼 개막에 맞춰 주민 주도형 플리마켓을 열고 구도심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1일 고흥군에 따르면 오는 4일 녹동항 드론쇼 개막식과 연계해 도양읍 쌈지공원 일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녹동 사슴골 쌈지마켓'을 개최한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주도로 참여해 수공예품과 로컬푸드 판매, 체험

곡성군 "이번주 벚꽃 보러 섬진강으로 오세요"

곡성천 등 70-80% 개화
낙화 전 금주 방문 최적기



곡성군의 벚꽃이 70-80% 개화하며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낙화 전 온전히 꽃을 즐길 수 있는 이번 주가 봄나들이의 최적기로 꼽힌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현재 섬진강변과 곡성천 제방 일대 주요 구간의 벚꽃이 봉우리를 터트리며 이번 주를 기점으로 만개할 전망이다.

섬진강을 따라 이어진 벚꽃길은 강물과 어우러져 점차 웅장한 꽃터널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기차마을 주변 역시 개화가 속도를 내며 가족 단위 나들이객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다.

특히 지금 시기는 꽃이 충분히 피어 풍성함을 갖추면서도 낙화가 시작되기 전으로, 벚꽃을 가장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시기로 꼽힌다.

또한 매주 토요일 열리는 푼방마켓 일대는 연분홍 벚꽃과 노란 개나리가 어우러져 색다른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하며, 꽃이 충분히 피어 풍성함을 갖추면서도 낙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라 상춘객들의 방문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다만 이번 주 비 예보가 있어 강우량과 풍속에 따라 일부 벚꽃의 낙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재 벚꽃 개화율이 높은 만큼 이번 주가 가장 좋은 방문 시기가 될 것"이라며 "혼잡한 주말을 피해 여유롭게 꽃을 즐길 수 있는 평일 방문도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화순군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시범 운영

화순군은 1일 "화순고려병원장례식장을 대상으로 다회용기를 도입하는 '1회용품 없는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례식장에서 대량 발생하는 플라스틱과 종이류 등 1회용 폐기물을 줄이고 위생적인 조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되는 다회용기는 접시와 그릇, 컵 등 총 9종류로 구성됐으며 장례식장 특성에 맞춰 다양한 음식을 담기 적합하도록 제작됐다.

사용한 식기는 회수 후 화순지역자활센터

에서 철저한 세척과 살균 과정을 거쳐 다시 장례식장에 공급되는 자원 순환형 체계로 운영된다.

군은 엄격한 위생 관리를 통해 다회용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존보다 청결한 식기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민영에 환경과장은 "이번 시범 운영이 지역 내 친환경 장례문화 정착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여수해수청, 1분기 유류세보조금 3억 지급

관내 10개사·21척 대상

안화물 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항화물운송업계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유류비를 지원한다.

1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10개사(21척)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보조금 지급은 최근 유가 변동으로 가중된 선사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연

운해 배정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전체 예산은 14억7천만원으로, 오는 2분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4월30일까지), 지원 비율 상향 조정(초과분의 50%에서 70%) 등의 영향으로 지급 규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이 업계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